

“밝고 원만한 생각이 극락”

하지 못했구나/ 고인들이 씩뚱 지계미를 탐하지 말라/ 보검으로는 송장을 베지 않노라/ 미소(微笑)
“옛 도인들은 한 가지 이치로 넉넉하게 통하는 도리를 즐겼던 분들인데, 그 도인들이 씩뚱 지계미를 가지고 번거로이 묻는 것은 허물이 크다는 말씀이지. 실제로 자기가 수행을 해서 어떤 경지를 얻으면 구태여 말을 궁리하며 선문답을 할 필요가 없어. 이 도리는 말이나 글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실사 그렇게 알았다 하더라도 한 톨이라도 필요 없는 것이야.”

극락암에 오면 고즈넉한 산사의 풍광에 반하게 되고 어쩐지 참선이나 명상수행을 통해 도인이 되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그러면 사람들은 명정 스님께 불속 묻는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생활 가운데 정진집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이 있습니까?”

“조선시대 선조 때의 청매 조사는 고요한 산중 선방에서 나와 일부러 시끄러운 장터로 공부하러 나왔어. 사람들이 붐비는 장바닥 한 구석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에 순일하게 잘 되면 ‘오늘은 장을 참 잘 보았구나’ 하고 공부가 잘 되지 않는 날이면 ‘오늘은 장을 참 못 보았구나’ 하며 자기의 공부를 점검했어. 청매 조사는 앉으나 서나 오나가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참선을 했지.”

인간의 업식(業識)은 수만 년 열심히 본능적으로 그 밑 빠진 독을 채워 왔기에 그 업식을 바꾸려면 극심한 고통을 맛보지 않으면 안 된다. 힘들고 잘 안 되는 일일수록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단련하는 데 진정한 묘미가 있는 것 이란다. 명정 스님은 말미에 “그렇다고 참선이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주 쉬운 것도 아니야. 참선은 우리의 생명 그 자체지”라고 덧붙인다.

“사람은 응골 찬 신념이 있어야 해. 신념이라는 것은 행선지요, 표지판이야. 만약 행선지가 없는 차(車)라면 얼마나 우습겠는가. 얼마나 무모하게 헤매고 다니는지를 생각해 보면 행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그래서 이 신념이란 진리의 이상향으로 향해서 가는 원동력인 것이야.”

산중에 계시지만 산 아래 동네의 소식을 훤히 꿰고 있는지라, 명정 스님은 민중들의 삶이 어렵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하셨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평소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해. 마음에 따라 거지도 되고 왕자도 되며 생각이 따라 지옥과 천국이 판이하게 벌어져. 희망에 부풀어 밝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살아가며 생각하는 발상부터 무언가 다르고 차이가 나지. 아무리 역경에 처해 있더라도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참고 견디어 밝은 희망을 가슴에 안고 있으면 머지않아 축복이 오리라는 신념을 지니

고 살아야지. 하루 종일 퍼붓는 소나기는 없으니까.”

경봉 스님은 극락암에 왔다가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대문 밖을 나서면 돌도 맑고 물도 맑으니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도 말고 물에 미끄러져 웃도 버리지 말고 잘들 가라”는 말씀을 하셨다. 명정 스님은 “마음속으로 밝고도 원만한 생

각을 지닌다면 거기가 바로 극락인 것이니, 다시는 극락암을 찾지 말라”고 이르신다. 스님 무슨 그런 섬세한 말씀을 하세요.

산목련 꽃향기를 들으려 와야지요. 향기 소리 깊은 곳에 차 한 잔 마시려 와야지요.

글·사진=문운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명정 스님은 1959년 해인사로 출가, 1960년 통도사 극락암에서 경봉 스님의 시자가 되었다. 1961년 경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5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40년 넘게 운수남자(雲水衲子)로 평생을 참선 수행에 전념해 왔다. 현재 영축총림 극락선원 선원장으로 있다. 편저서로는 <경봉 스님 말씀> <삼소굴 이야기> <경허집> <한암집> <신심명> <참이야기 禪이야기> 등 다수 있다.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30> 일봉 서경보 스님

세계에서 박사학위를 126개나 받고 선필(禪筆) 100만장, 시비 757개, 동상 95개를 세우고, 159개국 5,000개 단체에서 세계법왕으로 추대하고, 112개국 1,046개 단체에서 존자 칭호를 받은 사람은 일봉 스님 밖에 없을 것이다. 유엔 전권대사로 인류평화를 위해 노력하시면서도 매일 같이 책을 엮어 저서가 1,042권이나 되고, 수계발자가 6,832명이나 된다. 그래서, 기네스북의 왕관만도 다섯 개나 되었다.

스님은 1996년 4월 24일 인천 불교삼장대학(종립대학)에서 창립법어를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4월 4일 의령 낙성사에 참석하고, 13일 서울삼장대학 졸업식을 보고, 18일 초창법회를 하신 후 24일 인천에 내려가니, 83세 노인으로서 과로가 되었던 것이다. 스님은 26일 입원하시며, “아무래도 내가 재기

태국에서 열린 세계불교도대회에 다녀와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려면 영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깨닫고 45세의 높은 나이로 10대 어린이들과 영어공부를 하였다. 세계적인 포교사가 된 것은 불국사 주지, 동국대 불교대학장으로 있을 때 외국 손님들을 잘 알아 접대하고 또 상호교환하여 교환교수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미안마 상가대학



경보 스님상(제주 광명사).

다른 신문에 선필에 능한 대선사가 왔다고 대서특필하여 더욱 유명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법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계불교법왕이 된 이후부터는 회색빛 장삼을 벗고 노랑색 가사를 입었다. 이것은 동남아 일대 사람들이 모두 노랑가사를 입고, 워싱턴대학, 하와이대학 교수로 있다가 백범사에 선종대학을 세우기로 하였다.

1990년 제17차 WFB대회 때는 김광배 박사과 박동기·전판근·정철 호법단장의 노력에 의해 35개국 800여명의 각국 대표들이 참석, 장장 9일 동안의 행사를 원만히 치렀다. 박장도 의식(儀式)도 달랐지만 국제보살계와 판자살라를 통해 세계불교가

세계평화·화합 위해 ‘핵무기 포기 5계 실천운동’

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인천대학 학장은 한정섭 법사가 부탁하라”하여, 그 후 3년 동안 인천대학 일을 본 일이 있다. 스님과의 인연은 1960년에 동국대학교 시절부터이지만 실제 이야기는 김대은 스님께 여러 차례 들었다.

“경보 스님은 제주도 분이야. 1914년 서귀포에서 태어나 32년 산방굴사에서 스님이 되었으나, 도서지방에서는 불교를 바로 배울 수 없어 35년 육지로 올라와 전주 위봉사 총담 스님에게 ‘일봉’이라는 당호를 받았다. 전주 교도소에 갔다가 대은 스님을 만나니 감방 안에서 쓴 원고를 조건 없이 주시면서 ‘서울에 가서 큰물에 놀아야 한다’ 하여, 개운사 대원암 박한영 스님을 뵈고 동국대학에 들어가 불교학을 전공한 것이 해인대학, 동아대학교수가 된 계기가 됐다. 1958년

에 간 것이나, 독일 함부르크대학, 스리랑카 콜롬보대학, 영국 런던대학에 유학하고 교환교수로 간 것이 우연이 아니고 대은 스님 말씀 따라 영어를 잘 한데다가 외교를 잘 한 영향이 컸다. 언젠가 한번 법왕청에서 공양청을 하여 가니 스리랑카 스님 몇 분과 법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내가 세계적인 포교사가 된 것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웃 때문이다. 독일 광산에 많은 광부들이 있고 간호원들이 와 있었는데 몇일부터 어느 대학에서 불교강연대회가 있다고 신문기자가 미리 와서 내 사진을 찍어 신문에 냈는데, 머나먼 나라에 와서 한복 입은 스님을 보니 고향생각이 나서 수백명이 모여 왔어요. 그래서 모두 글씨 한 장씩을 써주고 격려하였더니, 또

일불제자임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특히 모든 인류를 기아와 무지, 병고와난으로부터 구하고, 전쟁의 위기에 벗어나게 하며, 세계평화와 화합을 위해서 ‘핵무기 포기 5계 실천운동’을 강조했으니 1700년 한국불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일을 하였다.

내가 알기로는 한국 사람으로 외국에 나가 포교한 사람이 많지만, 일봉 스님이 씨를 뿌려 송산 스님이 가꾸어 그 다음에 들어간 사람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것으로 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 불꽃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본래 성불’을 하시면서도 왜 아함·방등·반야·법화를 설명해 놓고, “녹야원에서 쿠시나가라까지 한 말씀도 하지 아니했다” 하셨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한국불교선리연구원 학술사업 공모

한국불교선리연구원에서는 한국불교학의 발전과 불교학 연구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연구자들의 독창적이고 충실한 연구 성과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제3회 선리연구원 학술상 공모

- 1) 공모주제 : 불교학과 관련한 자유주제
- 2) 지원자격 : 불교학 분야 박사과정 수료이상 (해당분야 전문인력 이상은 제외)
- 3) 선정 인원과 상금 : 우수상 (1명) 500만원, (3명) 1인당 300만원
- 4) 제출서류
 - (1) 연구계획서 : A4 10매 내외의 자유형식
 - (2) 최근 5년간 연구 실적목록 1부
 - (3) 연구 실적목록상에 기입된 실적물 각 1부
 - (4) 이력서(주소·전화번호·e-mail은 반드시 기입할 것)
- 5) 제출기한 및 발표
 - (1) 제출기한 : 2009년 2월 11일 ~ 26일 오후 5시까지
 - (2) 선정 및 통보 : 2009년 3월 10일(선정자에 한해서 개별통보)
 - (3) 논문상 시상식 및 학술회의 : 2009년 5월 (예정)
 - (4) 발표논문제출과 논문집 간행 : 2009년 6월
- 6) 주의사항
 - (1) 선정자는 2009년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전반기 학술회의에 논문을 발표해야한다.
 - (2) 발표논문은 학계에 이미 발표된 적이 없는 참신한 논문이어야 한다. (연구내용의 표절 혹은 중복의 경우 선정 이후에도 수상 취소될 수 있음)
 - (3) 선정논문은 본 연구원의 학술회의 발표 이후 논문집 『선문화연구』에 게재해야 한다.

2 월례발표회

- 1) 발표주제
 - (1) 불교학과 불교사 및 응용불교학
 - (2) 한국불교학과 불교사 및 응용불교학
 - (3) 한국근현대불교사와 사상의 주요쟁점, 연구방법론
 - (4) 한국근현대불교문화(불교문학·불교음악·불교미술 등)
- 2) 발표문 분량 : A4 7~8매
- 3) 발표 자격 : 박사과정 이상자
- 4) 발표신청기간 : 연중 수시
- 5) 특 전
 - (1) 발표비 : 1인당 30만원
 - (2) 본 연구원 논문집 『선문화연구』에 논문 게재
 - (3) 『선문화연구』에 논문 게재 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문의 및 서류 제출처

110 - 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82번지 (재)선학원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연락처 02)734-9653, 9657
 팩 스 02)734-9622
 홈페이지 http://www.seonhakwon.or.kr
 연구원 메일 seonhakwon@paran.com

(재) 선학원 한국 불교 선 리 연구원

공생선원 봄 개강



혜거른스님께 듣는 능엄경

- 법 사 : 혜거른스님
- 시 간 : 오전 10시 30분
- 날 짜 : 3월 5일 목요일 (매주 목요일)

참선입문 (선문철요) 참선반 (육조단경)

- 법 사 : 무각스님
- 시 간 : 오전 10시 30분 / 저녁 7시 30분
- 날 짜 : 3월 3일 참선반 / 3월 4일 참선입문

* 청년법회(금강경오가해) 매주 토요일 6시 / 일요가족참선법회 매주 일요일 10시 30분 *

대한불교조계종 공생선원

(http://cafe.daum.net/zenmaster)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653번지 삼환프라자 7층 Tel 02)900-2448